모든 것을 그저 죽든지 살든지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고 다 이렇게 지냅니다만…. 그러니 며느리도 늙었단 말입니다. 소도 인제 늙었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꿈에 그 소가, 시아버지가 됐다가 소가 됐다가 하더니 그 소 속에서 시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나오더니 "얘야! 앉아 봐라. 내가 지금 저 아무 데 암자에 살고 있느니라. 그런데 거기서도 살지만 네가 자식을 데리고 그렇게 고생할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또 나왔느니라. 나는 거기서 살면서도 여기 또 나왔느니라. 인제는 네 자식도 다 길렀고 그러니 나를 좇아서 내가 가는 길로 가지 않으련?" 하거든요. 꿈에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님, 저도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식을 길러서 장가를 들여 놓으니까, 혼자서 농사지을 수도 없거니와 이제는 도저히 힘들고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님을 좇아가겠습니다." 하고 울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빼먹고 했지 뭡니까. (대중 웃음) 저번에도 빼먹은 게 많았어요. 금방 말하다가 이리로 가고 금방 말하다가 저리로 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도 고정된 게 없더군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나무나 하려고 밭에 나갔다가 고만 뱀에 물려서 발목이 부었거든요. 걸음을 못 걸으니 방에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 그 애들, 졸망졸망한 오 남매를 놔두고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 거 생각할 사이도 없이 허우적거리면서 바쁘게 돌아쳤는데 '세상에 이렇게, 오늘날 혼자 이렇게 살다니….' 하고선 우는 거라. 그렇게 울고 있는데 마루를 뭘로 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라. 누워 있다가는 '뭔가' 그러고 엉금엉금 기어서 문을 여니까, 소가 외양간에서 어떻게 풀고 나왔는지 나와서 꼬리로 마루를 치고 있는 거라. 꼬리를 마루 쪽으로 두고 네 다리를 꿇어앉아서 타라고 그 꼬리를 흔들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도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또 태워 주고 그랬으니까 '어, 나 타라고?' 하고선 목을 띠로다가 매서는 그걸 붙들고 고삐를 쥐고 탔겠다. 타니까 어슬렁어슬렁 산골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산골로 얼마를 들어갔는데 샘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물이 줄줄줄 흘러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꽉 엎드리듯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소가 아무 소리 없이 물 있는 데로 가서 한 발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발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 거 보니까 내 발을 거기다 넣으라나 보다.' 하고 물에다 담갔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부기가 쑥 빠지고 발 딛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 소가 사흘을 태워 줘서 그렇게 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꿈을 꾼 거예요. 울다가 꿈을 딱 깨고 나서 소를 찾으러 맨발로 그냥 뛰어나가서 보니까 소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산다고 하는 절에 가 보니까 한 20세 좀 넘은 젊은 스님이 거기서 살고 있더라 이거죠. 시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점 있는 것까지 닮았어요. 거기서 이 며느리가 그만 탄복을 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치악산에 있을 때인데 절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어떤 건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짐작했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는 거, 내가 이런 말 해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 다, 조상이든 자식이든 부처든 어느 이름을 막론해 놓고 이 소용돌이 속에, 바로 나라고 세울 게 없는 공한 이 소용돌이 속에 모든 것을 착, 그저 죽든지 살든지 놓아 버릴 수 있어야죠.

놓으세요. 놓고 가세요. 맡겨 놓고 가세요. 잘된 거는 감사하게 맡겨 놓고 또 안 되는 것은 '응, 안 되는 것은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믿고 놓으세요. 그 두 가지만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자1(남) 맡기는 거요, 두 가지만 하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허허, 두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고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인간이라면 계율, 질서, 교양, 충성, 효도 이런 거는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아주 전제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불심도 돈독하고요. 그렇다면 도둑질도 못 할 거고 강도질도 못 할 겁니다. 돈 주고 하래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믿고 전제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셔야 합니다. 안 되는 거는 한번 쓱 뒤집으세요. '아하! 주인공밖엔 해결을 못 하지.' 그러고 믿고, 믿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니까 걱정이 없다니까요. 안 되면 여러분은 방황하죠? 그런데 그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았거든요.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거죠.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니 운전수 노릇을 잘해야 돼요. 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갈 때 참 감사하죠. 그게 됐을 때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 하고 또 감사하게 놓고요.

그런데 고집멸도 사제법에 이런 게 있죠. 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살림살이하는 데에 모두가 고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고가 아닙니다.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게끔 고등 동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야 벗어나죠. 그래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어렵더라' 이런 게 있죠. 그러니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내 주인공이 나를 성숙하게끔 둥글게 이끌어 주는 과정이로구나.' 하는 걸 믿고 놓을 때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을 겁니다. 고에서 그냥 타파를 해 버렸기 때문에요. 고라는 이름에 끄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고라는 이름을 잘 요리를 해서 맛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맛이 좋은 겁니다. 감사하고 말입니다.

지금 그냥 누구한테 맞아서 기어서 가도, 밥을 굶고 지금 기어간대도 '아이고!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고 아마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니 고가 고가 아니다 이겁니다. 업보가 많으니 죄가 많으니 이러고 난설하지 마세요. 어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아! 이거는 주인공밖에 해결 못 하는구나.' 하고 믿고 놓으세요. 안 돼도 '이것도 되는 거지, 뭐.' 하고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쓱 한 찰나에 돌면서 그게 슬금슬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질문자1(남) 다른 게 지금은 거의 다 잘 되는데요, 잡념 같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큰스님 그 잡념도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잡념이 아니었더라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장할 수가 없지요. 그 잡념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잡념이라고 또 거기 걸리지 말라고요. 잡념은 바로 성숙되는 과정이에요.

> 고라는 이름에 끄달리지 마세요.
> 우리가 고라는 이름을 잘 요리해서 맛을 볼 수 있다면
> 그거는 아주 맛이 좋은 겁니다.

질문자2(여)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형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해서 초상을 치를 때 그 절차를 각자 자기 종교 의식대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형제간에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식으로 하자, 또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성당식으로 하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식으로 하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스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큰스님 난 좋기만 하니까…. (대중 웃음)

질문자2(여) 그럴 때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큰스님 이거 봐요. 아이고 참, 저이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형제가 오 형제든 팔 형제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이 사람은 가톨릭교를 믿고 이 사람은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 식으로다가 하자, 또 나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 식으로 하자 하고 세 사람이 나누고 싸웠어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해 주었지요. "누가 제일 큰형이냐?"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제일 큰형이래요.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 또 천주교 믿는 사람이 큰형이라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면 "큰형이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 의식을 따라라. 따르되 이건 이름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한 건데 당신네들, 이 지구가 독이라면 독 안에 같이 들어서 오물오물하면서 왜 이렇게 따지길 좋아해?" 내가 그랬지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다 불교다 이건 이름이에요. 진리는, 평등 진리는 하나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거기에 마음이 걸리면 손해를 보고 걸리지 않으면 아주 이익을 보고 그래요. 그리고 남 편안하게 해 주고, 남 편안하면 나도 편안한 거예요. 남을 편안치 않게 해 주면 나까지 편안치 않아요. 나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들을 그렇게 갖는다면 끝 간 데 없이 그렇게, 자식들까지 그렇게 내려갈 테니까 그게 난 싫다구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사는 것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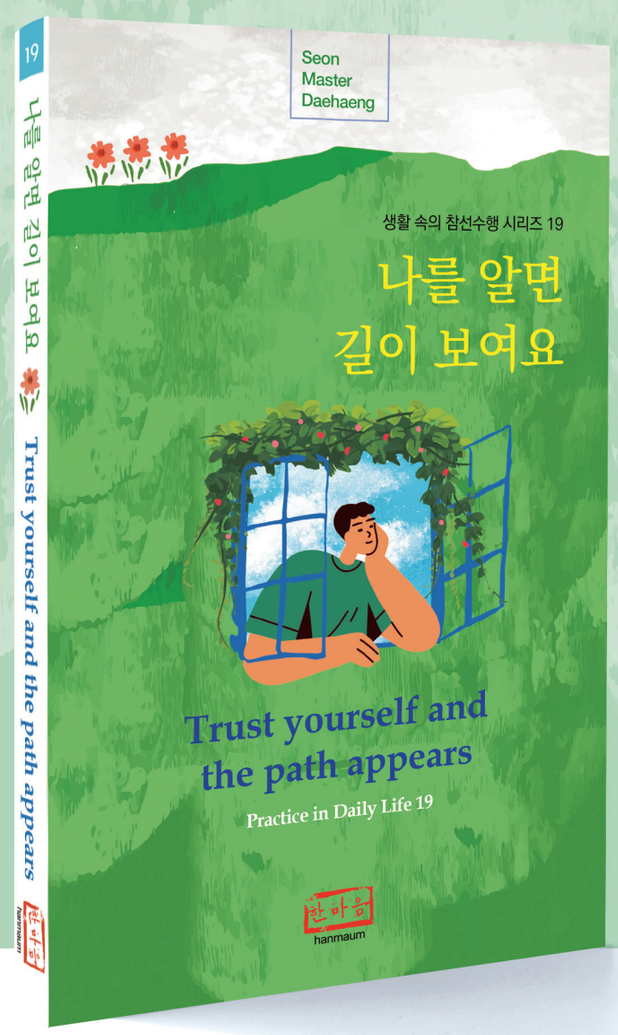
큰형이 가톨릭교라면 가톨릭교 의식으로 따라라 이거죠. 또 큰형이 아니고 동생이 바둥바둥 우기고 온통 그냥 고집을 세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동생 따라 줘요. 하하하….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교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네들 마음 편안하게 해 주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것이 둘이던가, 네? 둘이에요? 하나지. 그 하나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붉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 제삿날 형제들이 네가 더 냈느니 내가 더 냈느니,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그러고 싸워 봐요. 생시에 부모 앉혀 놓고 상 차려다 놓고 싸우는 거나 똑같애요. 그럼 그 밥맛 나겠어요? 좀 넓게 생각하라고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3월 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